과감한 기술경영의 선두에 선 CEO
토마토LSI 최선호 대표

1999년 10월 설립된 토마토LSI는 LDI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업체로 단계적인 차세대 LDI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Fabless design house로써 제품설계부터 양산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친 기술적인 서비스를 병행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매출에 있어서도 매년 300% 가량 꾸준히 성장하여 작년에는 약 454억원을 달성하는 등 자본 기반이 탄탄한 기업으로 자리잡아 벤처기업으로서는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마케팅 능력까지 겸비한 흔치 않은 성공 사례로 꼽힌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원칩으로 구성된 26만 컬러 지원의 휴대폰 LCD용 TFT 드라이버 IC를 개발, 출시하면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휴대폰 핵심칩 시장 가능성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동영상 휴대폰의 구동칩은 집적화의 한계로 대부분 2~3개 칩으로 돼 있어 휴대전화 단말기의 두께를 줄이기가 어려웠으나 원칩형 LDI 개발로 인해 휴대폰 슬림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히타치만이 개발에 성공해 시장 선점 가능성도 높다. 창업 5년 만인 올해 매출 규모를 1000억원대의 매출액을 자신하고 있는 것도 주력품목인 원칩형 LDI시장이 올해 급성장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코스닥 등록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력과 경영력의 결합

토마토LSI 최선호 대표는 90년대 말, LDI 사업의 시장성을 가늠해보고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 부사장에게 연구개발을 맡기고 자신은 직접 경영에 뛰어들었다.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는 휴대폰 시장에 주목하고 적절한 제품 개발에 착수한 최 대표의 의도는 잘 맞아떨어졌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눈을 돌려 대만, 중국의 심천과 상해, 일본 등 이미 4개의 외국 정식지사를 운영할 만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들 중에는 고급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상품화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작품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친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최 대표는 그 무엇보다도 제품의 시장성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이러한 그의 전략은 기술력과 경영력이 결합된 상승효과를 창출해내었다. 최 대표의 과감하고 정확한 마케팅 감각은 10여 년 간 마케팅 분야에서 다져온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 특히 6년 간의 대만 주재원 생활을 통해 최 대표는 시장성에 민감하고 기술 제품화 능력이 뛰어난 대만 기업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CEO로서의 책임의식

그의 책상에는 일본 경영학자 시미즈 류에이의 《*사장, CEO의 철칙*》이 놓여 있다. 직장인이었을 때와는 달리, 90여 명의 직원들을 이끌고 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최고책임자인 만큼 책임감이 크다.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경쟁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주, 임직원, 고객,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

"많은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성취감과 기쁨을 빼놓을 수 없지요."

힘있고 간결한 어투에서도 느껴지듯 최 대표는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이거다 싶으면 과감하게 시도하는 스타일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사업 전략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그의 추진력 있는 경영스타일은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

"컴퓨터에서 애플이 떠오르듯 LDI하면 토마토LSI가 떠오르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인으로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 성공모델로 자리잡은 토마토LSI의 최선호 대표. 앞으로의 힘찬 행보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분야로 꼽혀온 비메모리 반도체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D램에 이은 한국 대표 간판 제품으로 떠올랐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국산 비메모리 반도체는 올해에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들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고자 나섰다. 특히 휴대폰이나 PDA 등의 액정표시장치(LCD)를 구동하는 반도체인 LDI(LCD Drive IC)를 세계적인 기업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품목으로 성장시킨 국내 선두업체들 가운데 바로 토마토LSI(대표 최선호)가 있다.